

K-패션 등 한류 연관산업을 K-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

산업통상부 보도자료(2025. 11. 12.)

 산업부는 K-패션 기업을 방문해 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었으며, 정부는 연내 「한류 연계 K-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.

- 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.12(수) 무신사 스탠다드를 방문하여 K-패션 수출 현황을 점검했으며, 무신사, 딜리버드코리아, 쿠팡, CJ올리브영, 컬리 등 유통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를 청취하며 K-소비재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.
-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K-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K-소비재 수출도 증가하는 가운데, 역량과 경험을 갖춘 유통 플랫폼을 통한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산업부는 한류와 연관된 K-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.
- 한류 연계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여 K-소비재 프리미엄화를 추진, 한류박람회, K-POP 콘서트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한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, 지원 방식도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는 유통 플랫폼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- 물류, 인증, 지적권 등 수출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, KOTRA 현지 무역관과 협업하여 소비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물류 인프라를 지원하고, 할랄 등 국가별 상이한 해외인증 정보 제공 및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.
- 우리 유통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물 구축 및 홍보 지원, 현지 물류 파트너와의 연결, 통관·인증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- 여 본부장은 “우리 유통 플랫폼은 해외 소비자와 K-소비재를 연결하는 ‘핵심 가교’로, 역량있는 우리 유통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라 우리 중소·중견기업 제품이 세계인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”고 하면서, “K-수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,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「한류 연계 K-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」을 연내 발표할 계획”이라고 전했다.